

“자주 바뀌는 입시 정책 반영한 기사도움돼요”

취재 김은진 리포터 likemer@naeil.com



거주
부산 해운대구
좌동



자녀
중2, 고2



구독 기간
1년 2개월

〈내일교육〉은 어떻게 구독하게 됐나요?

작년에 SNS 공동 구매를 통해 구독하게 되었어요. 아이가 둘인데 입시 정보가 너무 부족해 도움을 받고 싶었어요. 올해도 구독 중인데 두 아이의 입시 제도가 달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내일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올해 고2가 된 큰아이는 의대를 준비하고 있어요. 스스로 잘하는 아이라 제가 해줄 게 없지만 그래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선배들이 들려주는 전공 메타버스_ 한의학과 인간이라는 소우주를 다루는 뿌리 깊은 의술

“큰아이의 희망 진로가 의학 계열이라 유용했어요. 특히 재학생과 졸업생 인터뷰는 생생한 대학 생활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이에게도 진로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어요.”



WEEKLY THEME_ 만만한 때가 없다? 2026~2028 대입 공략법

“큰아이가 2015 교육과정의 마지막 세대라 입시에 관심이 많아요. 진학하려는 의대의 정원 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아 불안했는데 연도별로 대입 공략법을 제시해주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도 의대 정원은 관심을 가져야겠더라고요. 자주 바뀌는 정책을 보고 있자니 불안해요. 매주 업데이트되는 교육 정책을 잘 반영해줄 것 같아서 챙겨 봅니다. 특히 위클리 테마는 깊이 있는 입시 정보를 전달해줘 만족스러워요.

자녀 교육과 관련해 요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가요?

큰아이는 기존 입시 제도의 마지막 학년이고 둘째는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중학생이죠. 큰아이 학년은 학생 수가 많더라고요. 수능을 볼 때 어떤 번수가 될지 걱정입니다. 의대 정원 문제도 빨리 안정되어야 수험생도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둘째도 형처럼 알아서 잘해주길 바라지만 다른 입시 제도가 시작되니 부모로서 가이드를 잘해줘야 할 것 같아요.

〈내일교육〉에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학과 소개 기사를 즐겨 보는데 부모 세대와 비교하면 학과 이름부터 달라 어렵더라고요. 의학 계열의 다양한 학과도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고교학점제 하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과목을 선택하면 정말 제대로 진로를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고교학점제가 학교에서 잘 시행되고 있는지도 알고 싶어요. @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

Reporter's A/S

고교학점제는 선택 과목을 공부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게끔 돕는 시스템입니다. 〈내일교육〉은 자문 교사단과 함께 계열별 선택 과목 가이드를 대학 모집 단위별로 소개하고 있어요. 학생이 희망하는 진로 계열과 과목이 연관된 기사를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본지 1177호 '계열별
선택 과목 가이드 ①
기계·전기·전자 계열'
기사 참고

